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의 구성타당화 연구*

박 지 영

(동의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를 한국의 외상관련 원조실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하여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수렴 및 개념구성 타당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7문항 중 4문항을 제외한 13문항으로 구성된 두 가지 차원의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가 수정·제시되었다. 제시된 척도에서 신뢰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불안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가 성립되었다. 소진척도와의 상관관계 수준이 매우 높아 개념구성타당도 성립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 조사대상자의 특성(연령, 성별, 개인외상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가 척도로서의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이차적 외상,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 신뢰도, 타당도

1. 서론

‘외상(trauma)’은 재해, 재난, 사고, 폭력 등의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현저한 심리적 충격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정신의학용어이며, 오늘날 인간 삶 속에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되어가고 있다. 폭풍, 홍수,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재난이나 범죄, 테러 등에 의한 폭력발생 또한 급증함으로써 외상피해의 규모와 범위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11년 한국정신보건의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사건의 파장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대처해오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공포, 급성불안, 정서적 무감각, 슬픔 등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Bell, 1995). 외상 스트레스는 그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외상피해를 목격했거나 직접적 피해자를 가족이나 친지로 둔 사람(Figley, 1995), 피해자 원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도 외상 스트레스의 위험에 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ley, 1995; Stamm, 1997). 특히 외국의 경우 외상피해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업무와 관련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에 대한 관심이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Meyers and Cornille, 2002; Creamer and Liddle, 2005; Adams, Boscarino and Figley, 2006; Boscarino, Figley and Adams, 2004; Bride, Robinson, Yegidis and Figley, 2004; Bride, 2007).

외상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실무자는 클라이언트가 겪었던 고통을 확인하고 감정이입을 실시하는 등 정서적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피해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피로와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들은 외상피해관련 업무 특성상 자신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도움을 주는 대상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나 무력감 등으로 인해 직장과 개인생활 모두에서 현저한 방해를 받기도 한다(Cornille and Meyers, 1999; Cunningham, 2003; Bride, 2007).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지닌 실무자는 정서와 인지,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도 변화를 겪으면서(Stamm, 1997) 클라이언트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힘들어지거나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띄기도 한다. 또한 회피나 부정, 클라이언트와의 과잉동일시 등과 같은 문제성 반응들을 보이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장벽을 지니게 된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등이 동반되기도 하면서 이직이나 퇴사를 결심하거나(Figley, 1999; Regehr and Cadell, 1999),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념상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직장생활과 개인생활 전반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Pratt and Pearlman, 1999; Cunningham, 2003). 이러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간과할 경우 원조실무자들은 장·단기의 정서적 및 신체적 문제와 함께 대인관계상의 부담감이나 소진 등을 겪을 소지 또한 높다(Beaton and Murphy, 1995; Stamm, 1997).

외상사건을 접하게 되는 경위가 다를 뿐 이들 실무자가 겪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증상이나 문제는 일차 피해자들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Cann and Pearlman, 1990; Mitchell and Dyregrov, 1993; Pearlman and Saakvitne, 1995; Beaton and Murphy, 1995; Everly and Mieschell, 1999; Dane, 2000; Meyers and Cornille, 2002; Baird and Jenkins, 2003).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피해수준이 심각할수록, 피해유형이 감정적 소모를 불러일으킬수록 원조자의 고통은 더욱 크며(Figley, 1995; Meyers and Cornille, 2002; Regehr et al., 2004; Creamer and Liddle, 2005; Perron and Hiltz, 2006),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다루는 실무자의 경우가 대표적 예이다. 최근에는 재해/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Bride, 2007, Figley, 2002), 허리케인, 홍수 등의 자연재해상황이나 테러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여 활동하는 재해정신보건(disaster mental health)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경험이 실증적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Naturale, 2007; Pulido, 2007).

이처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외상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겪게 되는 일종의 업무상의 위해라고 할 수 있으며(Figley, 1999; Pearlman, 1999), 관련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ride et al., 2004). 그러나 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피해상황에 가려 원조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신건강상의 변화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실무자들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스스로 인지해서 외부 도움을 스스로 구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하지만 외상피해를 입은 클라이언트 대부분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대처행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Bell, 1995) 원조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조실무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은 필수적이다(Bride, 2007). 고통을 겪는 타인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스트레스를 지니는 그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McCann and Pearlman, 1990; Figley, 1995), 적절히 다루어질 경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전격적으로 단기간에 회복되는 점(Figley, 1999; Bride et al., 2004; Dunkley and Whelan, 2006)에서 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는 그 징조와 증상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도구의 확보 및 검토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Bride, 2007). 외국의 경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가 다수 있으며, 이들 중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는 시행과 채점, 해석이 간편하다는 이점을 지녀 원조현장에서 실무자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도구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ide et al., 2004). 특히 이 척도는 미국 내 여러 원조전문가집단 중에서도 현직 임상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사회복지현장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측정과 이환율을 조사하는데 더욱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일차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본 Figley(1995, 1999)의 틀을 바탕으로 Bride et al.(2004)에 의해 개발된 STSS는 총 17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서, DSM-IV-TR(APA, 2000)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기준에 맞춰 침습, 회피, 각성 등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SS의 척도 신뢰도 및 타당도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Bride et al., 2004; Ting et al., 2005),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활용성이 입증되고 있다(Bride, 2007; Bride, Radey, and Figley, 2007; Pryce et al., 200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신뢰도 및 구조적 차원성에 관한 심리측정적 속성 평가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이에 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뿐만 아니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여타 도구들에 대한 심리측정적 속성평가가 아직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를 한국의 외상관련 원조실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하여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외상피해관련의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를 적용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수렴(convergent) 및 개념구성(construct)

타당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실무자에게 적합한 수정된 척도를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관련 이론 및 개념

외상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충격적 위기사건의 발생 후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스트레스반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동안, 이들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었다. 그러던 중 구조/구급대원, 소방대원 등과 같이 재해나 재난 등의 위험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업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대응책에 대한 연구(Mitchell, 1983)를 시작으로 외상피해자에게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규명하는 쪽으로 연구들이 확대되었다. 이들 연구가 위기사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사건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로 인한 심리적 외상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동안 '이차적 외상화(secodnary traumatization)'의 개념이 등장했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외상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원조함으로써 초래되는 행동과 정서상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Figley(1995)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 용어 이외에도 원조실무자의 업무로 인한 간접외상경험을 표현하는 용어로 '동정심 피로현상(compassion fatigue)'이나 '대리적 외상화(vicarious traumatization)' 등이 있지만 여러 측면을 포괄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tamm, 1997).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개념구성은 관찰 가능한 증상중심의 접근(Figley, 1995)과 개인 내면의 인지적 변화에 주목한 접근(Pearlman and Maclan, 1995)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이차적 외상'보다는 '대리적 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두 개념 간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Jenkins and Baird, 2002) 연구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뚜렷한 증상을 체크하는 척도를 통한 연구는 이차적 외상을 중심개념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깥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업무기간 동안 서서히 일어나는 원조자 삶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대리적 외상개념을 기초로 질적 방법론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Canfield, 2005).

Figley(1995)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개념은 주요타자의 외상 피해를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Horowitz(1976, 1979)의 인지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출발하여 외상피해자를 원조하는 직업종사자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극한의 경험이나 외상성 기억을 다루는 인지적 과정을 부정(denial)과 침습(intrusion)의 순환으로 설명한 Horowitz(1976, 1979)에 따르면, 이러한 순환은 외상사건에 대한 의미가 한 개인에게 충분히 수용되고 중국에는 그 사람의 인지적 스키마(schema)에 통합될 때 비로소 끝이 나지만, 일부의 경우엔 부정과 침습 간의 순

환이 장기화되면서 인지과정의 이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초래된다.

Horowitz의 인지모델은 정서적 무감각, 침습, 우울, 회피 등과 같이 외상 후 관찰 가능한 심리적 증상들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관련 실증적 주요연구들의 기초가 되고 있다(Figely, 1995, 2002; Stamm, 1997). 원조자들은 외상피해자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심리적 부상을 접하고 때론 본인의 안전에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임으로써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지니게 된다(Figely, 1995; Beaton and Murphy, 1995). Figely(1995)에 따르면, 사건을 접하게 되는 방식상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정신장애진단을 위한 통계편람(DSM-IV)』(APA, 1994)에서 제시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들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지니며, ①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충격적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현상인 ‘침습(intrusion)’증상, ② 외상충격을 연상시키는 어떤 것도 피하려고 하는 ‘회피(avoidance)’증상, ③ 만성적 긴장감으로 불면증 등을 겪는 ‘각성(arousal)’증상 등을 특징적으로 포함한다.

클라이언트가 겪은 외상충격에 대한 상세한 경청을 통해 긴급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위기원조 실무자들은 이차적 외상화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와 원조제공수행상의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Cornille and Meyers, 1999; Cunningham, 2003; Bride, 2007). 실제 미국의 임상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이환율을 연구한 Bride(2007)는 조사대상자의 81.7%가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심각하게 외상충격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이라고 응답했고,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증상을 지닌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55%였음을 밝혔다. 또 다른 연구(Cornille and Meyers, 1999; Dalton, 2001)에서도 약 38%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중간 수준 이상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으며 그 근원이나 발생형태 등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소진 현상을 들 수 있다(McCann and Pearlman, 1990; Peralman and Maclan, 1995; Figley, 1995). 소진은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상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방어적 반응으로 개념화되었으며, 특히 타인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휴먼서비스 및 정신보건 영역의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정서적 결과들을 포괄한다(Maslach, Jackson, and Leiter, 1996). 이러한 소진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 대개 위기 사건 스트레스와는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Gilliland and James, 1993).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비해 이론의 축적이나 측정상의 타당도 측면에서 개념 구성이 더욱 견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소진 개념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준거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Jenkins and Baird, 2002).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은 대인관계상의 부담이 큰 업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정서적으로 관여됨으로써 초래된다는 유사성 때문에 개념 구성에서 일정 부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소진과 적정한 정도(moderate)로 상관성을 지니는 것은 개념구성 타당도가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Jenkins and Baird, 2002).

이와 같은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의 두 개념은 발생근원 및 진행경로, 특성 등이 다르므로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다수의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외상피해를 입은 클

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비해 소진은 업무량, 업무구조, 직장내 지지 등과 같은 업무환경상의 조건에 의해 발생된다. 또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외상피해의 특성상 단시간에 전격적으로 발생 가능하지만, 소진은 업무량, 업무구조, 직장내 지지 등의 업무환경상의 조건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차이점을 지닌다(Figley, 1995; Boscarino et al., 2004). 일부 연구(Schaubend and Frazier, 1995)에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분명하게 겪음에 반해 소진현상은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소진의 개념은 원조전문가의 간접적 외상경험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Dane, 2000), 외상충격의 특수한 측면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측정하기에는 다소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침습과 회피증상이라는, 소진 증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상스트레스의 고유한 반응을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Mazza and Reynolds, 1999). 일부 연구(McCann and Pearlman, 1990; Regehr et al., 2003; Pryce et al., 2007)에서는 소진을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라는 업무스트레스의 결과적 현상 혹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발전되어 도달할 수 있는 경로의 마지막 지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2)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관련 요인 연구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 전문가(Collins and Long, 2003), 성폭력상담가(Schauben and Frazier, 1995; Salston and Figley, 2003), 심리외상치료자(Pearlman and MacLan, 1995), 9·11테러현장 구조대원(Creamer and Liddle, 2005) 등 다양한 원조업무 종사자들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예측요인 및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어왔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Cornille and Meyers, 1999; Dane, 2000; Regehr et al., 2004)들이 집중적으로 관련 변인들을 밝혀왔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아동학대 사안은 아동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의 목격 등으로 인해 감정적 소모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Meyers and Cornille, 2002; Regehr et al., 2004), 둘째, 원조자와 동료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이 수반될 수 있으며(공계순, 2004; 윤혜미·박명금, 2004; 박지영, 2008), 셋째, 업무 자체가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맺다가도 그들을 조사하고 때론 강제조치 등의 압박을 가해야 하는 전혀 다른 측면을 포함하므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상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조자 역시 외상스트레스 증상을 겪을 위험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기여해왔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 공통적으로 위험요인임으로 밝혀진 것에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성별로서, 여성이 외상충격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Cornille and Meyers, 1999; Kassam-Adams, 1995; 박지영, 2008). 그리고 실무자 근무경력이 짧을수록(Cunningham, 2003; 박지영, 2008)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위험정도도 높으며, 이는 낮은 교육훈련수준이 위험요인이라는 유추를 끌어내기도 한다(Baird and Jenkins, 2003). 그러나 연령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ide et al., 2004). 일부 연구(Schauber and Frazier, 1995)

에서는 실무자 자신의 과거 외상피해자로서의 경험 여부는 현재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Cunningham, 1996; Kassam-Adams, 1995; Pearlman and Mac Ian, 1995; Baird and Jenkins, 2003; 박지영, 2008)은 이것이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외상스트레스 중에서도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을 밝히고자 진행된 국내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재해나 재난상황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연구(최은숙, 2000; 신선인, 2000)에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최은숙(2000)은 응급간호학 측면에서 119대원들의 현장출동충격을 다루었으며, 신선인(2000)은 재해상황에서의 정신보건사회사업서비스 대응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개념을 소개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아동보호전문 직원에 대한 업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일차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Impact of Event Scale)에 의존하거나(김민애, 2002), '아동학대'라는 외상사건의 특성보다는 사례량이나 업무구조나 역할 등의 업무환경요인에 초점을 두고 소진관련 변인을 확인하는데 치중(공계순, 2004, 2005; 윤혜미·박병금, 2004)함으로써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고유한 측면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가 스트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 의의를 지닌다. 이외 소방대원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이차적 측면이 아니라 일차적·직접적 피해경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최말옥 외, 2007)가 있다.

3)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클라이언트의 외상경험을 다루어야 하는 원조전문가들의 이차적 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해 Horowitz(1979)의 IES(Impact of Event Scale)를 활용하였다. IES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우수성이 검증된 도구이지만 개인이 직접 경험한 외상사건의 충격정도를 측정하고자 고안된 만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연구하고자 할 경우 사용상의 신중함이 요구된다(Sabin-Farrell et al., 2003). 이에 비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Bride et al., 2004)는 원조실무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만을 고유하게 측정하고자 개발된 도구로서, 특히 원조실무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문항 추출과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Bride et al.(2004)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본 Figley(1995, 1999)의 이론을 바탕으로 STSS를 개발하였다. DSM-IV(APA, 1994)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기준에 맞춰 침습, 회피, 고조된 각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 부합하는 다수의 문항pool을 만든 후 양적 및 질적 방법의 혼합을 통해 추출된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STSS는 간단하고 시행이 쉽다는 이점으로 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ide, 2007). 그러나 침습, 회피, 각성의 세 가지 요인 간의 상관성이 높아 개념구성상의 문제가 있으며 두 요소 혹은 단일 요소 모형에 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Ting et al., 2005; Devilly, Wright, and Varker, 2009)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3이며, 하위영역별로는 침습영역 .80(5문항), 회피영역 .87(7문항), 각성영역 .83(5문항)으로 높은 신뢰도수준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Bride et al., 2004; Bride, 2007). 또한 이 척도는 우수한 수준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지녔으며 요인구조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Bride et al., 2004). 척도 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영역별 요인상관성이 외상스트레스 증상과 관련한 다른 실증적 연구결과(Foa, Riggs, Dancu, and Rothbaum, 1993)와도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Bride et al., 2004; Ting et al., 2005). 그러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는 구조방정식모형의 해석과 관련한 자체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good model fit이 가설 모형을 증명하거나 다른 경쟁모델들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Kline, 1998)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4요인구조(King, Leskin, King, and Weathers, 1998; Sack, Seeley, and Clarke, 1997)나 2요인구조(Buckley, Blanchard, and Hickling, 1998) 등과 같은 대안적 모형 중 하나가 STSS의 요인구조로 더 적절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한달 간 전국 19개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4개 구·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자료를 입수하여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이것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로 전국 각 기관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규모가 큰 시·도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부씩,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군 단위 기관에는 5부씩의 설문지가 우편 발송되었다. 발송된 총 272부 중 245부가 회수(회수율 90.07%)되었으며, 이 중 응답상의 결항이 많은 7개를 제외한 238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

일차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외상충격관련 척도들이 외상을 간접적으로 접한 개인의 충격을 측정할 경우에는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닌다는 점으로부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가 개발되었다(Bride et al., 2004). 총 17문항의 STSS의 하위차원과 문항은 <표 1>

과 같으며, 누적된 직장생활 스트레스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묻는 것으로 한정시켰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할 수 있는 리커트 척도이다. 높은 점수가 각 하위차원별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역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래 영어사용자를 위해 개발된 STSS 문항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자가 문항을 번역한 후, 영어와 한국어의 동시사용이 가능한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을 얻어 번역수정작업을 하였으며, 정신보건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 조언을 통해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15명의 위기관련 원조실무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색하거나 혼란스러운 문장을 수정하였다.

〈표 1〉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하위차원과 문항

하위차원(Dimension)	문항(Item)
침습 (Intrusion: IT)	(2) 클라이언트와의 업무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쿵쥔거렸다(IT2)
	(3) 클라이언트가 겪은 충격을 내가 다시 겪는 것 같았다(IT3)
	(6)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일이 떠올라서 당황스러웠다(IT6)
	(10)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일이 생각났다(IT10)
	(13)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IT13)
회피 (Avoidance: AV)	(1) 내가 감정적으로 무감각하다고 느꼈다(AV1)
	(5) 미래에 대해 암담함을 느꼈다(AV5)
	(7)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AV7)
	(9) 평상시보다 덜 활발했다(AV9)
	(12)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싶었다(AV12)
	(14)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는 피하고 싶었다(AV14)
	(17) 클라이언트와 면담내용 중 일부는 기억하려해도 할 수 없었다(AV17)
각성 (Arousal: AR)	(4) 잠을 설쳤다(AR4)
	(8)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AR8)
	(11)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AR11)
	(15) 화를 쉽게 냈다(AR15)
	(16)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AR16)

(2) 수렴타당도 및 개념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한 기타 측정치

수렴타당도는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조사도구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된다. 우울과 불안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지표로 인식(Pearlman and Mac Ian, 1995)되기도 하며, DSM-IV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과 우울은 일정 부분에 있어 중복된다는 점(Bride et al., 2004)에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은 일정 부분 개념상의 관련성을 지니거나

동일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 및 불안 증상의 정도가 STSS와 각 하위영역과 상관성이 있을 때 수렴타당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념구성타당도는 이론적 관계 체계 안에서 척도가 다른 변수들과 관계하는 방식에 기초한 것(Rubin and Babbie, 2001)이다. 소진은 외상성 주제와 이미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발생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마지막 경로(McCann and Pearlman, 1989)라는 점에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이론체계구성상의 관계성을 지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과의 상관성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개념구성타당도를 뒷받침하므로(Jenkins and Baird, 2002) STSS와 소진 척도 간 일정 수준의 상관성이 지지될 경우 개념구성타당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직장업무환경과 관련된 소진은 클라이언트 외상과의 접촉으로 인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는 이론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Schauben and Frazier, 1995)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중간수준(상관계수 .21~.40) 이상을 넘을 수는 없다(Jenkins and Baird, 2002). 소진은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감소 등의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Maslach et al., 1996), 이 중 '개인성취감 감소' 영역은 나머지 두 영역과는 달리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Jenkins and Baird, 2002) 판별타당도 성립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수렴타당도 및 개념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측정도구를 통한 우울, 불안, 그리고 소진에 대한 결과들이 고려되었다.

①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지각하는 우울 정도는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되고 전경구·이민규(1992, 재인용 고려대부설행동과학연구소, 1999)가 검증한 한국판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점 척도(0='별로 그렇지 않다_1일 이하', 1='가끔 그렇다_1~2일', 2='종종 그렇다_3~4일', 3='자주 그렇다_5~7일')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도구는 자가 시행 및 채점이 용이하다는 점 이외에도 우울증 환자를 판별해서 진단하려는 목적보다는 일반인구집단의 생활상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된 도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점수합계는 0에서 6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16점을 기준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임상적 우울군과 도움이 필요 없는 정상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02였다.

② 상태-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Scale)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성인의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Spielberger(1970)이 개발하고 김정택(1978, 재인용 고려대부설행동과학연구소, 1999)이 번안한 상태-특성 불안척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불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원래 이 척도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되어진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개인차로서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는 특성불안 문항을 제외하는 대신, 인간의 일시적 감정상태로서 현재의 주관적·의식적 불안상태를 파악하는 상태불안 문항 20개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그렇다', 4='정말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44로 높은 내적신뢰도를 보여주었다.

③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소진의 정도를 측정하는 이 도구는 국내·외 소진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소진현상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Salton and Figley, 2003). 그러므로 MBI의 사용은 여러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을 지닌다. 7점 척도(0='전혀 없다', 1='일년에 1~2번', 2='한달에 1번' 3='한달에 2~3번', 4='일주일에 1번', 5='일주일에 2~3번', 6='매일')의 22문항으로 구성된 MBI는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분석될 수 있다. 7점 척도 문항이 응답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조사대상자들이 전문실무자 집단이기에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정서 탈진 영역 .897(9문항), 비인격화 영역 .752(5문항), 개인적 성취감 영역 .849(8문항)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높은 내적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를 우리나라의 외상피해관련 원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적합하도록 심리측정적 특성을 평가하여 한국형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SPSS 13.0을 통해 사용하였다. 문항분석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내적신뢰도와 문항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탐색적 요인분석은 척도의 하위차원과 하위차원별 문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분석은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수렴타당도 및 개념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238명 중 남성은 43.7%, 여성은 56.3%를 차지하여 성별상의 치우침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평균30세)에서는 주로 20대와 30대가 93.7%를 차지해 연령상의 편향경향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69.7%가 미혼으로 기혼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95.8%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고른 고학력구성을 보였다. 종사기간 측면에서는 3년 미만의 경우가 72.3%로 상당수가 종사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의 21.8%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외상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8.5%는 아동학대피해경험을, 48.1%는 가정폭력피해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구분	속성	빈도(%)	N
성별	남	104 (43.7)	238 (100)
	여	134 (56.3)	
연령	20-29세	146 (61.3)	
	30-39세	77 (32.4)	
	40-49세	13 (5.5)	
	50세 이상	2 (.8)	
종사기간	1년 미만	60(25.2)	
	1년~3년 미만	112(47.1)	
	3년~5년 미만	49(20.6)	
	5년 이상	17(7.1)	
개인외상력 여부	없다	186 (78.2)	
	있다	52 (21.8)	

2)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문항분석

우리나라 외상관련 원조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STSS)의 하위차원별 각 문항과 문항총합간의 상관관계, 문항을 제외했을 때의 신뢰도(Scale alphas if item deleted), 그리고 내적신뢰도를 살펴보고자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STSS)의 세 가지 하위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침습(IT)이 .826, 회피(AV)가 .809, 각성(AR)이 .856으로 비교적 높은 내적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문항에서 하위차원별 각 문항과 문항총합간의 상관관계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각 문항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라는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조작화된 나머지 다른 문항들과 내용 측면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 문항을 제외했을 때에도 신뢰도상의 변화가 크지 않음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문항분석을 통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표 3〉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문항분석 결과

(N=238)				
하위차원(Dimension)	문항(Item)	Item-total correlation	Scale alphas if item deleted	Reliability
침습 (IT)	IT2	.601	.925	.826
	IT3	.585	.925	
	IT6	.720	.922	
	IT10	.644	.924	
	IT13	.673	.923	
회피 (AV)	AV1	.458	.928	.809
	AV5	.593	.925	
	AV7	.646	.924	
	AV9	.467	.928	
	AV12	.718	.922	
	AV14	.650	.924	
	AV17	.521	.927	
각성 (AR)	AR4	.590	.925	.856
	AR8	.778	.920	
	AR11	.707	.922	
	AR15	.617	.925	
	AR16	.770	.921	

3)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서구에서 개발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하위차원이 우리나라 대상자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실시에 앞서,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절하지 살펴보았다. 각 문항의 첨도와 왜도의 값이 |2|보다 낮게 나타나 표본의 정규분포를 보여주었다. 또한 Kaiser-Meyer Oklin(KMO)의 값이 .933으로 매우 높았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상관관계행렬이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 아닌 것($\text{Chi-square}=2058.091$, $df=136$, $p<.001$)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의 사용이 적절함을 보여주었다(Kline, 1998).

요인분석을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CA)과 공통요인분석(CFA)이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고유분산의 존재를 인식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측정변수의 자료 내에 고유분산도 있음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통분산과 고유요인의 구분에 목적을 두지 않는 주성분분석보다는 측정변수간 상관을 초래하는 공통요인과 고유요인의 구별을 중시하는 공통요인 분석이 더 적절하다(이순목,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rimax회전을 사용하여 주축요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서 문항분석을 거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17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값

(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이 두 가지로 나타났고, 전체 변량의 53.69%를 설명하였다(표 4 참조). 엄격하게 요인별 문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알려진 .40을 본 연구에서도 기준으로 삼아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요인1(47.08%)에 적재된 문항은 IT2, IT3, IT6, IT10, IT13, AV5, AV12, AV14, AR4, AR8, AR11, AR16이었으며, 요인 2(6.610%)에 적재된 문항으로는 AV1, AV7, AV12, AV14, AV17, AR8, AR11, AR15, AR16이었다. 이 중 5개의 문항(AV12, AV14, AR8, AR11, AR16)은 요인 1과 요인 2에 이중적재 되었으며, AV9는 .40의 기준에 미달되어 어느 요인에도 적재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침습영역 문항(5개)은 모두 요인1에 적재되었다. 회피영역은 7개 문항 중 이중 적재된 2개 문항(AV12, AV14)과 어느 요인에도 적재되지 못한 1개 문항(AV9)을 제외하고는 요인 1에 1개 문항(AV5), 요인 2에 3개 문항(AV1, AV7, AV17)이 적재되어 상대적으로 요인 2로 쏠린 경향을 보였다. 각성영역은 5개 문항 중 요인1(AR4)과 요인2(AR15)에 각 1개 문항씩 적재되었으며, 나머지 3문항(AR8, AR11, AR16)은 이중적재 되어 요인1과 요인2 사이에서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원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세 개 요인구조 대신 본 연구에서는 요인1(침습)과 요인 2(회피)의 두 개 요인구조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량과 요인별 상관관계($r = .64$)를 살펴볼 때, 두 개의 요인구조는 요인 1(침습)에 크게 치우친 형태이며,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표 4〉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238)			
하위차원(Dimension)	문항(Item)	Factor1	Factor2
침습 (IT)	IT2	.542	.333
	IT3	.633	.204
	IT6	.695	.336
	IT10	.625	.299
	IT13	.667	.299
회피 (AV)	AV1	.131	.592
	AV5	.484	.381
	AV7	.291	.704
	AV9	.309	.388
	AV12*	.607	.437
	AV14*	.490	.461
	AV17	.319	.459
각성 (AR)	AR4	.615	.231
	AR8*	.512	.646
	AR11*	.535	.502
	AR15	.396	.529
	AR16*	.625	.498
아이겐 값(Eigen value)		8.004	1.124
변량(variance)		47.080%	6.610%

* 이중으로 적재된 문항임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수정에서 요인적재량 기준에 미달된 AV9(평상시보다 덜 활발했다)는 우선적으로 삭제되었다. 이중적재 문항 또한 한 요인에 귀속되기 보다는 다차원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생략될 것이 권장된다(김계수, 2007). 그러나 요인적재량에만 의존한 획일적 문항 배제보다는 연구자의 이론적 토대에 근거한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순목, 2000)에서 이중적재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V12(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나, 장소,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싶었다)의 경우 요인1(침습)의 적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척도문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피하고 싶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회피 증상과 관련성을 띤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실제 회피하고 싶을 만큼 침습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R16(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역시 요인1(침습)의 적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침습영역 문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 이중적재 문항들(AV14, AR8, AR11)은 각 요인의 적재량이 거의 비슷하여 삭제되었다. 결과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총 17 문항 중 4문항을 제외한 13문항으로 구성된 두 가지 차원의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가 제시되었다(표 4 참조).

4)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신뢰도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제시된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두 가지 하위차원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침습영역의 신뢰도계수는 .894였고, 회피영역의 경우 .723이었다. 원 척도(STSS)와 같이 수정된 척도(K-STSS)도 내적신뢰도상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비교를 통해 볼 때, 침습의 경우 원척도(STSS)에서의 계수(.826) 보다 약간 높아진 반면, 회피영역 계수는 이전(.809)보다 낮아졌다.

(2) 수렴타당도 및 개념구성타당도

①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하위차원과 우울, 불안에 관한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에서 침습은 우울(.509)과 불안(.636) 양쪽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회피와 우울(.469) 및 불안(.602) 간 상관성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K-STSS)의 두 가지 하위차원과 우울, 불안 증상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점을 통해 수렴타당도가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하위차원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N=238)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	K-STSS 관련 요인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침습 차원	.509**	.636**
회피 차원	.469**	.602**

** p < .01

② 개념구성타당도

개념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와 소진 척도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을 통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Jenkins and Baird, 2002)에 따르면, 소진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간의 상관성이 중간수준(상관계수 .21~.40)¹⁾을 넘을 경우 두 개념이 이론체계 구성상의 관련성을 지니되 서로 다른 구성개념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와 소진의 상관성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개념구성타당도 성립이 어렵다. 특히 소진 하위영역 중 '정서적 탈진'과 '비인격화'와의 높은 상관성은 본 척도가 이들 영역을 상당부분 중복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진의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Jenkins and Baird, 2002) '개인성취감' 영역은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침습과 회피 영역 모두에서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성립될 수 있다.

〈표 6〉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하위차원과 이론체계구성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N=238)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	소진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침습 차원	.673**	.498**	.005
회피 차원	.636**	.627**	-.157

** p < .01

5)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변별력

척도(K-STSS)의 변별력은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특성별로 측정된 조사도구의 수준의 차이를 구별

1) 상관계수 .00-.20: 상관성 작음, .21-.40: 상관성 보통, .41이상: 상관성 큼(Cohen, 1992, 재인용, Jenkins and Baird, 2002)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인 원조실무자의 특성에 따라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의 하위차원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의 분석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종사기간, 그리고 개인외상경험 여부에 따라 침습과 회피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원조자가 여성인 경우, 이전 개인외상경험이 있는 경우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기존 연구결과(Kassam-Adams, 1995; Pearlman and Mac Ian, 1995; Cunningham, 1996; Cornille and Meyers, 1999; Baird and Jenkins, 2003; Nelson-Gardell and Harris, 2003; 박지영, 2008)와도 일치한다. 특히 개인외상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가 검증된 점은 ‘알려진 집단(known groups)’을 차별화하는 척도의 능력을 보여준다(Rubin and Babbie, 2001). 종사기간의 경우, 5년 이상 집단이 침습과 회피 수준 모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종사기간이 길수록 보호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보았을 때, 1년 미만의 신입집단보다는 오히려 3년~5년 미만 집단이 가장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표본크기의 불균형으로 결과해석상의 한계가 따른다. 연령 변수는 기존 연구(Bride et al., 2004)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없다고 밝혔듯,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척도(K-STSS)의 판별타당도를 성립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가 원조실무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척도로서의 변별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원조실무자의 특성에 따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정도

구분	속성	침습		회피	
		평균	통계값	평균	통계값
성별	남	21.02	t=-2.95**	9.27	t=-2.54*
	여	23.56		10.20	
연령	20-29세	22.81	F=1.90	9.95	F=1.76
	30-39세	22.51		9.79	
	40-49세	18.30		8.07	
	50세 이상	20.50		9.50	
종사기간	1년 미만	20.81	F=5.50***	9.16	F=5.87***
	1년~3년 미만	23.18		10.05	
	3년~5년 미만	24.26		10.65	
	5년 이상	18.17		7.82	
개인외상 여부	없다	21.70	t=-3.33***	9.64	t=-1.53
	있다	25.11		10.32	

* $p < .05$, ** $p < .01$, *** $p < .001$

(N=238)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관련 원조실무자의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서구에서 개발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를 한국의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외상관련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를 적용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원래 총 17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는 두 가지 하위차원의 13문항으로 줄어든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로 수정되었다.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는 비교적 높은 신뢰도 수준을 지녔으며, 관련 변수와의 분석에서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알려진 집단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념구성타당도 분석에서는 소진척도 중 정서적 탈진 및 비인간화 영역과 지나치게 높은 상관성을 보여 독립적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의 하위차원별 문항은 <표 8>을 통해 제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원척도(STSS)의 침습, 회피, 각성의 세 하위차원 중 각성은 침습과 회피로 분산되어 최종적 수정척도(K-STSS)는 침습과 회피 두 가지 하위차원만으로 구성되었다. 두 가지 하위차원 중에서도 침습요인의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세 가지 요인구조 간의 상관성이 높아 개념구성상 문제가 있으며 두 요소 혹은 단일 요소 모형에 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Ting et al., 2005; Devilly et al., 2008)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원척도(STSS)의 문항 중 4문항이 수정척도에서는 삭제되었다. 그 중 AR9(평상시보다 덜 활발했다)는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덜 활발했다'는 표현 자체의 애매모호함 때문으로 간주되어 수정척도에서 삭제되었다. AR8(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AV14(특정한 클라이언트는 피하고 싶었다), AR11(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세 문항은 이중적재로 인해 삭제되었다. 원척도에서는 회피차원에 속했던 AV5(미래에 대해 암담함을 느꼈다), AV12(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고 싶었다)는 수정척도에서는 침습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문항은 표면적으로는 회피에 대해 묻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응답자에게 회피하고 싶을 만큼 침습 증상이 심한가를 묻는 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수정 척도에서는 침습으로 분류되었다고 보아진다. 원척도의 각성차원에 속했던 AR4(잠을 설쳤다), AR16(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역시 수정척도에서는 침습차원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역시 각성 증상의 근원은 침습 증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침습의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발현되며 그 영향력도 강하다(Bride, 2007)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대처 및 개입전략에서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척도상 각성차원이었던 AR15(화를 쉽게 냈다)는 수정척도에서는 회피로 분류되었다.

〈표 8〉 최종의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

(N=238)

하위차원 (Dimension)	문항(Item)
침습 영역	(1) 클라이언트와의 업무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쿵광거렸다
	(2) 클라이언트가 겪은 충격을 내가 다시 겪는 것 같았다
	(3)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일이 떠올라서 당황스러웠다
	(4)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일이 생각났다
	(5)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6) 미래에 대해 부담함을 느꼈다
	(7)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 라도 피하고 싶었다.
	(8) 잠을 설쳤다
	(9)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10) 내가 감정적으로 무감각하다고 느꼈다
회피 영역	(11)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
	(12) 클라이언트와 면담내용 중 일부는 기억하려해도 할 수 없었다
	(13) 화를 쉽게 냈다

그동안 외국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실무자의 원조능력과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왔으며, 결론적으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위헤이므로 현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다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Rudolph and Stamm, 1999; Figley, 1999). 이러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위험을 예방하고 실무자를 보호하는 첫 단계는 그 징조와 증상들을 확인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즉 문제의 확인과 인식이 먼저 이루어진 후 적절한 대처방안의 마련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를 우리나라 실무자에게 맞게 수정하여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도구로서 K-STSS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상피해 원조기관에서 실무자의 정신건강상의 수준을 사정하는 조사연구(prevalence study)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차적 외상관련 선형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조사연구를 통한 기초자료의 형성은 이론의 폭을 넓히고 원조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전문원조관계에서 원조자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외상피해를 경험한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에 원조자의 정신건강을 사정해서 살펴봄이 중요하다. 아울러 향후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 평가도구를 통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관련 조사연구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활히 진행되면서 이 문제를 예

방 혹은 완화하기 위한 1회기 집단프로그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Clemans, 2004).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평가도구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실천상의 함의와 함께 몇 가지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설문회수율(90%)은 매우 높지만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의 비응답자들이 응답자들과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응답자들 중에는 어느 정도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면서 이에 관한 설문에 개인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매우 심하게 겪는 사람이라면 설문에 응할 여유조차 없어 응답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거나 부실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양적방법론에 의존한 외상 관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한계로서 질적연구방법론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Liffie and Steed, 2000).

둘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TSS)는 DSM-IV(APA, 1994)의 진단기준에 따라 세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지만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는 두 가지 하위차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배하고 있다. 더구나 소진척도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한 개념구성 타당도가 성립되지 못해 개념 구성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드러난 증상만을 묻는 문항구성상의 근원적 문제일 수 있다. 증상 차원 위주로 문항을 구성할 경우 대상자의 내면적 인지변화의 측면을 다루기 힘들어 결국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성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 점 역시 외상관련의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대상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한 전반적 경험을 파악하는 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상피해 관련 실무자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한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과를 전체 외상관련 실무자에게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양한 실무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K-STSS)는 양적 방법론이 지닌 한계와 함께 무엇보다도 원칙도가 의도했던 개념구성과 다른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요인구조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서구의 척도를 수정·보완하는 수준보다는 우리나라 실무자에 맞는 척도를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이 함께 활용되는 혼합방법론의 사용으로 이론이나 진단기준 등에 치우쳐서 현장의 실제 경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측정도구는 우리나라 현장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정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적절한 평가도구의 사용으로 실무자와 현장 조직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즉각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신보건전문가와 같이 업무가 본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전문적 자기인식(self-awareness)이 중요한 한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부설행동과학연구소(편) (1999). 『심리척도 핸드북Ⅱ』, 학지사.
- 공계순.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67-292.
- _____.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9: 7-35.
- 김계수. 2007.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 김민애. 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의 대처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외상관련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29: 177-206.
- 신선인. 2000. “재해 및 재난 구호시 요구되는 정신보건 사회사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10: 61-83.
- 윤혜미·박병금.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 279-301.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최말옥·손광훈·김서정·김행미. 2007. “소방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3(3): 173-199.
- 최은숙. 2000. “소방대원의 출동충격스트레스에 관한 구조모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R. E., Boscarino, J. A., and Figley, C. R. 2006. Compassion Fatigu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cial Workers: A Valid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103-10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ird, S. and Jenkins, S. R.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Staff.” *Violence and Victims* 18(1): 71-86.
- Beaton, R. and Murphy, S. 1995. “Stress Symptom Factors in Emergency Workers.” In C. R. Figley(Ed.),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ner/Mazel.
- Bell, J. L. 1995. “Traumatic Event Debriefing: Service delivery design and the role of social work.” *Social Work* 40(1): 36-43.
- Boscarino, J. A., Figley, C. R., and Adams, R. E. 2004. “Evidence of compassion fatigue following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A study of secondary trauma among social workers in New York.”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6: 98-108.
- Bride, B. E., Robinson, M. M., Yegidis, B., and Figley, C. R.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4(1): 27-35.

- Bride, B. E. 2007. "Prevalence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Social Workers." *Social Work* 52(1): 63-70.
- Bride, B. E., Radey, M., and Figley, C. R. 2007. "Measuring Compassion Fatigu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5: 155-163.
- Buckley, T. C., Blanchard, E. H., and Hickling, E. J. 1998.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1091-1099.
- Canfield, J. 2005. "Secondary Traumatization, Burnout,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s It Relates to Therapists Who Treat Trauma".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75: 81-101.
- Clemans, S. 2004. "Recognizing vicarious traumatization: a single session group model for trauma workers." *Social Work with Groups* 27(2/3): 55-72.
- Collins, S., and Long, A. 2003. "Working with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rauma: consequences for mental health-care worker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417-424.
- Cornile, T. A., and Meyers, T. W. 1999.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Prevalence, Severity, and Predictive Factors". *Traumatology* 5(1): 1-17.
- Creamer, T. L., and Liddle, B. J. 2005.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Disaster Mental Health Workers Responding to the September 11 Attack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1): 89-96.
- Cunningham, M. 2003. "Impact of Trauma Work on Social Work Clinicians: Empirical Findings." *Social Work* 48(4): 451-459.
- Dane, B. 2000. "Child welfare workers: an innovative approach for interacting with secondary trauma."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6(1): 27-38.
- Deville, G. J., Wright, R., and Varker, T. 2009. "Vicarious trauma, secondary traumatic stress or simply burnout? Effect of trauma therapy o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3: 373-385.
- Everly, G. S., and Mitchell, J. T. 1999.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CISM): A New Era and Standard of Care in Crisis Intervention*(2nd ed.). Chevron Publishing.
- Figley, C. R. 1995. "Compassion a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An overview". In C. R. Figley(Ed.),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ner/Mazel.
- _____. 2002. "Compassion fatigue and the psychotherapist's chronic lack of self ca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1433-1441.
- Foa, E. B., Riggs, D. S., Dancu, C. V. and Rothbaum, B. O. 199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instrument for assess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 459-473.
- Gilliland, B. E. and James, R. K. 1993.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Brooks/Cole.
- Hesse, A. R. 2002. "Secondary trauma: how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affects therapist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0(3): 293-309.
- Horowitz, M. 1976. *Stress response syndromes*. Northvale: Jason Aronson.
- _____. 1979. "Psychological response to serious life events". In V. Hamilton and D. M.

- Warburton(Eds.), *Human stress and cognition*(pp. 235-263).
- Horowitz, M., Wilner, N., and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s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 Ilfie, G., and Steed, L. 2000. "Exploring the counselor's experience of working with perpetrators and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4): 393-412.
- Jenkins, S. R., and Baird, S. 2002.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Vicarious Trauma: A Validational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5): 423-432.
- Kassam-Adams, N. 1999. "The risks of treating sexual trauma: Stress and secondary trauma in psychotherapist" In B. H. Stamm(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2nd ed., pp. 37-48). Baltimore: Sidran Press.
- King, D. W., Leskin, G. A., King, L. A., and Weathers, F. W. 199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evidence for the dimensional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Assessment* 10: 90-96.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Maslach, C., Jackson, S. E., and Leiter, M. P. 1996.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3rd edn).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California.
- Mazza, J. J. and Reynolds, W. M. 1999. "Exposure to violence in young inner-cit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and PTSD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203-213.
- McCann, I. L., and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 131-149.
- Meyers, T. W. and Cornille, T. Z. 2002. "The trauma of working with traumatized children." In C. R. Figley(Ed.), *Treating compassion fatigue*(pp. 39-55). New York: Brunner-Routledge.
- Mitchell, J. T. 1983. "When disaster strikes: The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Journal of Medical Emergency Service* 8(1): 9-36.
- Mitchell, J. T., and Dyregrov, A. 1993. "Traumatic Stress in Disaster Workers and Emergency Personnel: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J. P. Wilson and B. Raphael(Ed.),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Syndromes*, Plenum Press.
- Naturale, A. 2007.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Social Workers Responding to Disaster: Reports from the Field."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5: 173-181.
- Pearlman, L. A., and Maclan, P. 1995. "Vicarious traumatization: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rauma work on trauma 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Research and Practice* 36: 558-565.
- Pearlman, L. A., and Saakvitne, K. 1995. *Trauma and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in psychotherapy with incest survivors*. New York: W. W. Norton.
- Pearlman, L. A. 1996. Psychometric review of TSI Belief Scale, Revision L. In Bl H. Stamm (Ed.), *Measurement of stress, trauma, and adaptation*(pp. 419-430). Luthervill, MD: Sidran Press.
- Pryce, J. G., Shackelford, K. K., and Pryce, D. 2007.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the Child*

Welfare Professional.

- Pulido, M. L. 2007. In their words: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social workers responding to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New York City. *Social Work* 52(3): 279-281.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3): 385-401.
- Regehr, C., and Cadell, S. 1999. Secondary trauma in sexual assault crisis work: Implications for therapists and therapy. *Canadian Social Work* 1(1): 56-63.
- Regehr, C., and Hemsworth, D. 2001. "individual Predictors of Posttraumatic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6: 156-161.
- Rubin, A. and Babbie, E. 2001.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4th ed.). CA: Brooks/Cole.
- Rudolph, J. M., and Stamm, H. 1999. "Maximizing Human Capital: Moderat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through Administrative and Policy Action" In B. H. Stamm(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2nd ed., pp. 277-292). Baltimore: Sidran Press.
- Sabin-Farrell, R. and Turpin, G.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implications for the mental health of health work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449-480.
- Sack, W. H., Seeley, J. R., and Clarke, G. N. 1997. "Does PTSD transcend cultural barri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49-54.
- Salston, M., and Figley, C. R. 2003. "Secondary Traumatic Stress Effects of Working With Survivors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 167-174.
- Schauben, J. J. and Frazier, P. A. 1995. "Vicarious Trauma: The effects on Female Counselors of Working with Sexual Violence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49-64.
- Stamm, B. H. 1997. "Work-relat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PTSD Research Quarterly* 8(2): 1-8.
- Ting, L., Jacobson, J. M., Sanders, S., Bride, B. E., and Harrington, D. 2005.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STSS):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ith a sampl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In W. R. Nugent(Ed.), *Approaches to Measuring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Haworth.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K-STSS)*

Park, Ji-Young
(Dong-Eu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A total of 238 practitioners in child protection agencies are recruited using complete enumeration metho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strument are tested by item-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and convergent and construct valid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rnal consistency values for the two dimensions of the K-STSS are good. While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is empirically confirmed, the construct validity is not supported. The EFA with the common factor analysis method reveals the factor structure in the observed variables. The finding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although it was reliable and discriminant, the K-STSS needed to be explored more in a way to support construct validity.

Key words: Secondary Trauma,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STSS), Reliability, Validity

[논문 접수일 : 11. 06. 01, 심사일 : 11. 06. 22, 게재 확정일 : 11. 08. 2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Foundation Grant(2009)